

LG생건, 새 사령탑에 이정애 선임

차석용 부회장 용퇴 결정 LG그룹 내 첫 여성 CEO 신입사원 공채 출신 임원



이정애 LG생활건강 신입 사장

지난 2005년부터 18년간 LG생활건강을 이끌어온 차석용 부회장이 물러난다. 그의 뒤를 이어 음료사업부를 총괄하던 이정애 부사장이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되며, LG그룹의 첫 여성 사장이 탄생했다.

LG생활건강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음료(Refreshment)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 부사장을 CEO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취임한 이정애 신입 사장은 LG생활건강 신입사원 공채 출신 최초의 여성임원이다. 디테일한 면까지 꼼꼼히 챙기는 여성적인 감성뿐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1986년 입사해 생활용품 분야에서 마케팅 업무를 시작한 이후 생활용품사업부장, 럭셔리화장품사업부장 및 음료사업부장 등을 거치며 전반적인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아왔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2015년 말부터는 럭셔리 화장품 사업부장을 맡아 '후'

'숨' '오휘' 등 LG생활건강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궁중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후'는 '왕후의 궁중문화'라는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2016년 단일브랜드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에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썼다. 2019년 이후 음료 사업을 맡아 소비트렌드에 발맞춘 제품 육성과 적극적인 마케팅, 유연한 채널 전략으로 성장을 견인해 왔다.

LG생활건강은 이와 함께 일본 법인장을 맡고 있는 오상문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뷰티(Beauty) 사업부장으로

보임하고, 하주열직임을 상무를 전략 부문장으로 선임했으며, LG경영개발원에서 권순모 상무를 정도경영부문장으로 전입시켰다.

한편, 지난 3월 7번째 연임에 성공한 차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였지만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용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회장은 지난 2005년 LG생활건강의 구원투수로 영입된 이후 기업 성장을 통해 생활용품 의존도가 컸던 사업부문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탄탄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1조원이던 LG생활건강 매출은 지난 2021년 8조원을 넘기며 1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6년 중국의 '샤드 사태'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을 때도 LG생활건강은 흔들림없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아모레퍼시픽을 넘어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는 2011년 LG그룹 내에서 외부 영입 경영인 중 처음 부회장 자리에 올랐으며, 7년 연임에 성공하며 10대 그룹 계열사 최장수 CEO로 등극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명우 사장, 부회장 승진

동원그룹 대표이사급 인사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 대응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방침



물 글로벌 유통 사업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동원그룹은 이와 함께 김성용 동원푸드 식재부문 대표

이명우 사장을 동원F&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김 대표이사는 동원F&B, 동원푸드에서 영업, 마케팅 등을 경험한 식품 비즈니스 전문가로 동원그룹의 식품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문목 동원푸드 FS외식 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식재/FS외식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동원푸드는 이를 통해 식재부문, FS외식부문, 축육부문 세 부문 체제로 변경된다.

한편, 동원F&B 대표이사였던 김재욱 사장은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에 신설되는 조직인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원그룹 전반의 ESG 경영 강화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통업계 신제품

CJ제일제당 'NY양념갈비·트리플감자전' 만두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 '비비고'가 퓨전 한식 레스토랑과 손잡고 선보이는 신개념 만두를 앞세워 시장 1위를 공고히 한다.

CJ제일제당은 호족반(好族飯)과 협업을 통해 신제품 'NY(엔와이)양념갈비만두'와 '트리플감자전만두'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비고 NY양념갈비만두'는 호족반의 대표 메뉴인 NY양념갈비를 응용했다. 만두 크기를 기존 왕고자에 비해 크게 만들고 달콤함과 짭짤한 맛이 어우러진 갈비살과 새콤한 양념의 파를



넣었다. '비비고 트리플감자전만두'는 호족반의 별미 메뉴로 알려진 트리플감자전을 만두소로 만들었다. 부드러운 감자와 진한 트리플향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JW생활건강 마이코드 비타민D3 4000IU

JW생활건강은 뼈 건강을 위한 '마이코드 비타민D3 4000IU'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마이코드 비타민D3 4000IU'는 주

원료인 비타민D3를 4000IU 함유하고 있으며, 하루 한 번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의 비타민D를 충족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DS M사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스위스산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차별화된 커피문화 만끽... 맥심플랜트, 4년간 70만명 발걸음

동서식품 커피 관련 모든과정 직접 체험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즐기려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공간이 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플랜트(Maxim PLANT)'가 바로 그곳이다. 2018년 4월 오픈 이후 4년간 누적 방문객 수가 약 70만 명에 이를 만큼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다.



맥심플랜트 3층 전경 /동서식품

맥심 플랜트는 국내 대표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이 운영하는 맥심의 브랜드 체험관으로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 즐길 수 없던 차별화된 커피 문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맥심 플랜트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 애호가를 대상으로 커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커피 클래스를 운영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매주 목요일 지하

2층 아카데미에서 커피 한 잔이 나오는 전 과정을 소개하는 베이직 클래스부터 직접 커피를 볶고 추출하는 로스팅 클래스까지 커피에 관한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점차 고급화·다양화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에 발맞춰 선보이는 맥심 플랜트만의 메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자랑 중 하나다.

올 가을을 맞아 선보인 한정 'Fall Blend'는 견과류의 고소함과 밀크 초콜렛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다. 또한 프리미엄 커피믹스 '맥심 슈프림골드'를 사용하여 만든 '맥심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는 진한 커피 맛, 부드럽고 달콤한 매력의 '맥심 슈프림골드'를 크림과 함께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메뉴이다.

또한 '공감각커피'도 맥심 플랜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다. 맥심 플랜트 3층에 마련된 '브루잉 라운지'에서 태블릿 기기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의 향미, 산미, 로스팅 정도를 고르면 16종의 커피 중 하나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신원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임산부 감염병 빅데이터 센터' 개소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8일 '임산부 감염병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임산부의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이용해 위험인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플랫폼 내 정보 연계를 통해 임산부 감염병 연구 및 혁신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임산부 COVID-19 감염데이터 수집 및 생산 ▲임산부 감염병 위중증 위험요인 발굴과 관리 방안 생산 ▲임산부 감염병 관리지침 정책 지원 ▲감염병 플랫폼 연계 데이터 생

산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업, 대학 및 병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 빅데이터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협력단장(산부인과)은 "임산부 법정 감염병 위험인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센터를 개소했다"며 "국내외 임산부 감염병 데이터를 연계하고 임산부 감염병 연구 및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중근당고촌재단 국내·외 학생 42명 장학금

중근당고촌재단은 23일 온라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장학생과 국내 유학생 등 4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중근당고촌재단은 인도네시아의 반둥공과대학교와 국립대학, 베트남의 하노이약학대학교와 호치민의약학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중인 베트남 장학생 2명에게는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25일(금) 음력: 11월 2일

수도권 날씨 7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7:22 | 해질 17:16

지역별 날씨: 연천 5/14, 동두천 5/15, 가평 1/13, 파주 4/14, 서울 7/15, 양평 2/14, 인천 9/15, 수원 7/16, 용인 7/16, 평택 3/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